화엄경, '옷'으로 피어나다

'옷들이 전시회에서 움직인다.' 얼핏 들으면 SF영화에서나 들을 법한 얘기지만 이기향 교수(한성대 의생활학부)의 의상전시회 제목이다.

화엄사상을 주제로 옷을 만든 이기향 교수가 9월 5일부터 16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별관 광화문 갤러리에서 '움직이는 전시'와 '일반전시'로 나눠 두차례 전시회를 갖는다.

이기향교수, 9월 5~16일까지 광화문 갤러리

모두 주제는 '화(華)'. 바로 <화엄경>에서 따왔다. 우선 5일부터 7일까지는 '움직이는 전시'로 4년에 걸쳐 완성한 30여점의 의상을 입은 모델들이 등장해 무용과 음악을 곁들인 공연을 한다. 퍼포먼스가 펼쳐지는 일종의 의상극 형식이다.

이번에 등장하는 의상들은 저마다 제목이 있다. '삼매에 든 석가모니'를 비롯해 '문수보살을 만남', '명상춤을 추는 여인', '연꽃을 간직한 여인', '사창가의 순결한 처녀-베트남', '모성의 마야부인-인도', '비구니 수행자', '절규하는 중동 여인들', '억압의 땅 티베트에', '미륵의 메시지', '보현보살'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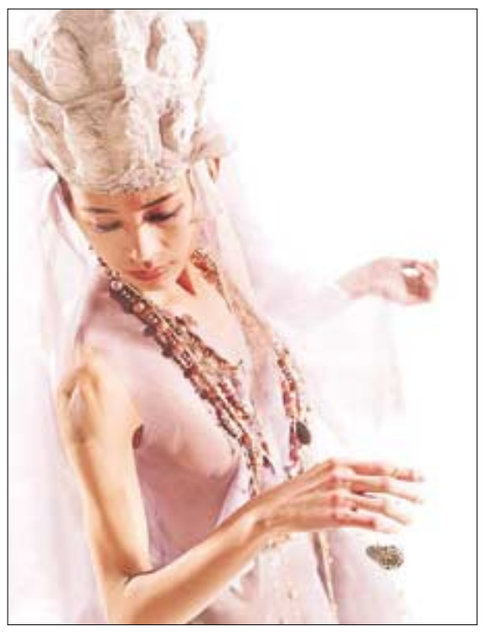
◇마야부인

선재동자가 52선지식을 친견하기 위해 구법여행을 떠났듯 이기향 교수가 그동안 작품 소재를 찾기 위해 여행했던 나라들속에서 만난 여성의 모습을 불교적으로 재해석해 디자인 했다. 가령 그리스에서 만난 신비로운 분위기의 여인을 떠올리면서 <화엄경>을 간략하게 줄여 찬탄한 약찬게 756글자를 옷에

'삼매에 든 석가모니' '모성의 마야부인' 등

무용·음악 곁들인 의상극형식 퍼포먼스

디자인해 그리스 풍의 드레스를 만들었다. 베트남 뒷골목 가난한 여인들에게서 모티브를 따온 '사창가의 순결함'은 월남의 민속복식 아오자이에 스텐실로 작업한 안상수체의 <화엄경>을 적어 넣었다. 또 '모성의 마야부인'은 <화엄경> 제 64 변상도를 쪽빛 노방위에 금박으로 스텐실 작업해 연출한 인도의 전통복인 사리다.


◇11면 관음.

8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일반전시도 독특한 아이디어로 가득하다.

두개의 전시실 가운데 홀에 2대의 빔프로젝터를 사용해 관객들이 전시장에 들어서면 작품 모티브와 제작과정을 소개하는 영상물이 상영된다.

또 관객은 눈으로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도여행을 떠나는 선재동자처럼 연꽃을 들고 전시실을 돌아다니며 의상을 둘러본 뒤 연꽃과 연잎으로 화엄의 탑을 쌓는 이벤트도 마련된다.

이기향 교수는 "공연과 전시라는 두 조형요소가 공존하는 전시회를 통해 일종의 마당극 형식으로 관객들이 함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의상전을 만들고 싶었다"며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여성의 화신들을 통해 화엄의 불국토를 이룩하는데 여성들도 한몫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번 전시회를 기획했다"고 말했다.(02)399-1153.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2003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막공연

뮤지컬 '에밀레·천년의 소리' 막올라

13일 오전 11시 경주 엑스포공원 백결공연장은 개회 선언에 이어 경쾌한 다듬이 방망이 소리로 가득찼다. 10월 23일까지 72일간 이어질 '2003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공연이었다. 이번 엑스포는 경상북도가 1998년, 2000년에 이어 '천마의 꿈'을 주제로 한 세번째 문화 행사다. 다듬이 소리에 이어 음악총체극 '에밀레-천년의 소리'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신라 성덕대왕 신종(일명 에밀레종)의 비밀을 푸는 이번 엑스포의 주제공연이다. 신라 백성들을 위해 희생된 한 아기의 맑은 영혼으로 탄생된 에밀레종은 천년을 한결같이 태평성대를 기원하며 같은 소리를 내왔다. 에밀레종의 슬프고 감동적인 설화를 바탕으로 꾸민 이 뮤지컬은 영원한 신라의 울림을 전통음악인 판소리와 창가, 현대음악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담았다. 여기에 전통무예인 택견과 선무도를 활용한 박진감 있는 군무와 영상이 라이브연주와 생동감 있게 어우러졌다. 이외에도 이번 문화제전에는 50여가지의 크고 작은 행사가 펼쳐진다. 4차원 입체영상물에서 세계민속공연, 청년문화제, 캐릭터전까지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하다. '세계신화전'과 4차원 주제영상 '화랑영웅 기파랑전', 주제공연 '에밀레-천년의 소리' 그리고 특별행사로 열리는 신라의 저자거리 '난장트기', 세계캐릭터 애니메이션전인 '천마에서 마시마로까지' 등이 그것이다. www.cultureexpo.or.kr.

경주=박원구기자

<주요 문화 공연 일정표>

행 사 명	장 소	내 용
세계신화전	새벌터	세계신화 등장인물 형상화 및 영상화
에밀레-천년의 소리	백결공연장	에밀레종에 얽힌 설화를 뮤지컬로 공연
천마의 꿈-화랑영웅	기파랑 에밀레 극장	기파랑의 이야기를 담은 입체영화 상영
민속공연	백결공연장 · 처용마당	각국 민속춤 공연
전통저자거리(난장트기)	저자거리	신라시대 저자거리를 재현해 놨다.
세계 캐릭터·애니메이션전	천마의 궁전	각국 대표적인 캐릭터 전시, 만화영화 상영
컴퓨터 게임(천년의 신화II)	풍월주게임방	삼국시대 배경 입체시뮬레이션 게임
대학문화축제	처용마당	패션쇼, 뮤지컬, 음악 등 공연
성(性)문화전	처용의 집	세계 성 관련 조각, 그림, 영상물 등 전시
서커스 공연	천마의 궁전앞	러시아 국립서커스단 공연
야외오페라, 창작연극	천마총, 문무대왕 수중릉 앞	오페라와 연극으로 신라문화 조명

손재현무용단, 잠비스 국제민속축제 참가

'연화'·'연꽃의 소리' 공연

동국대 손재현 무용단은 21일부터 26일까지 벨기에 나무르에서 열리는 '잠비스 국제민속축제'에 초청돼 공연한다.

44년의 역사를 가진 이 축제는 벨기에 남부 나무르 지역의 잠비스에서 매년 8월에 열리는 축제로 유럽과 아시아에서 10여개국 무용단이 참가해 자국의 민속무용을 선사한다.

동국대 손재현 무용단이 이번 행사에서 선보이는 것은 '연화'와 '영혼의 소리' 두 작품이다. '연화'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청정한 마음을 연꽃에 비유했다. 이 작품에는 분홍색 연꽃을 든 4명의 무용수가 무대로 나와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을 주제로 춤사위를 흩날린다. 진흙속에 피어나는 고고한 자태의 연꽃처럼, 욕망이나 집착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인간 누구에게나 순진무구하고 청정한 본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현대 발레로 전해준다. 이어 펼쳐지는 '영혼의 소리'는 인간의 원초적 사랑과 절망을 춤으로 표현했다. 격정적이고 율동미 넘치는 동작이 인상적이다.

손재현 동국대 교수는 "불교무용이야말로 우리문화를 대표해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예술장르라 생각한다"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번 행사야말로 한국불교를 포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참가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주일기자

◇동국대 손재현 무용단이 인간의 '자성청정심'을 현대발레로 표현한 '연화'를 공연하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Bt 불교TV <ch 32>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06:05 불교강좌
10:05 BBS신행 상담실
11:05 행복스튜디오 황청원입니다
14:05 네트워크연결, 전국은 오늘
16:45 룸비니동산
01:00 한밤의 명상음악

20일 16:05 팡팡 룸비니 동산
21일 16:35 최완수의 불교문화 바로알기
22일 15:25 강법선의 난과 생활
23일 16:50 다큐스페셜 삶과 예술
24일 15:05 자비의 천수천안
25일 16:50 덕신스님의 사찰문화여행
26일 12:20 의학특집(안면술)

하이라이트

■**불교방송**:△행복스튜디오 황청원입니다(24일 11:05~12:00)시인 황청원 씨가 진행하는 주부대상 교양 프로그램 '행복 스튜디어 황청원입니다' 일요일 코너에는 옛날 신문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보는 '옛날 신문을 읽었다'와 청취자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사는게 뭔지' 등이 준비돼 있다.

■**불교텔레비전**:△자비의 천수천안(24일 15:05~16:00)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과일장사로 다섯 명의 자식을 키웠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자식들에게 외면당한 선복례 할머니의 기구한 사연이 소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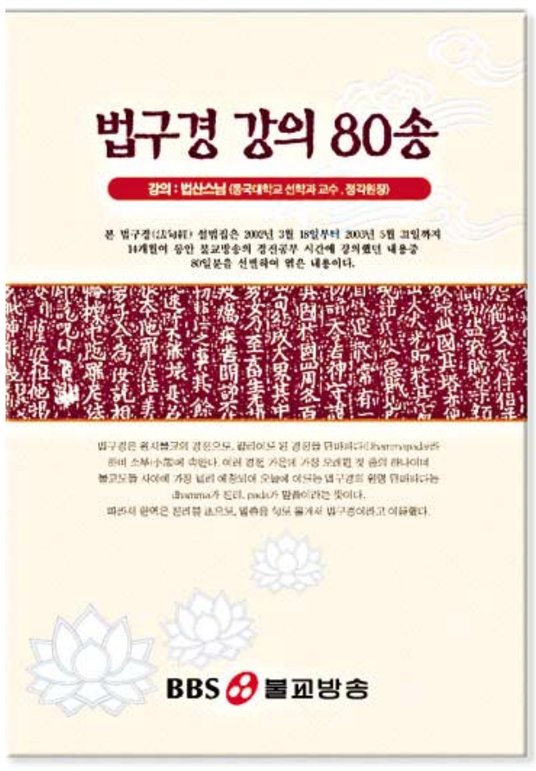
법구경 강의 80송

불교방송에서는 동국대 교수, 법산스님의 설법집《법구경 강의 80송》을 테이프로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박한 현실 속 현대인들의 마음에 한구절의 시처럼 쉽게 다가오는 법구경을,

법산스님은 알기쉬운 생활방편을 곁들여 불교를 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잔잔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어라.
피곤한 사람에게 길은 멀어라.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 길거니
그는 바른 법을 모르기 때문일세.
- 법구경 우암품



구입문의 불교방송 포교자료팀
전 화 (02)706-3502~5
가 격 70,000원(C70×20EA)

BBS 불교방송
서울FM101.9MHz · 부산FM89.9MHz · 광주FM89.7MHz · 대구FM94.5MHz · 청주FM96.7MHz · 춘천FM100.1MHz